

인사의 말씀



대한전기학회장
이 동 호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전임 회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강연을 하여 주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성낙정 회장님, 일본 전기학회 桑原彰 부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 및 학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수려한 동해안의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곳 설악산에서 대한전기학회의 1993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켜 보면 우리 대한전기학회가 1947년 7월 발족한 이래 오늘날 국내 굴지의 학술단체로 성장한 것은 역대의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세계 경제는 마야호로 이데오르기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

식과 함께 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며 경제의 불려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가간의 기술장벽이 점차 높아만 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기학회도 이상의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회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며 오늘 이곳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시는 產, 學, 研의 회원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내실있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다 진취적인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실로 뜻깊은바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들께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전기공업과 관련 첨단산업의 고도화에 전력해 오실 결과 21세기에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술의 바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선진 각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전기학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학회내 학술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결과 산업계의 개발사례 140여편, 학계의 연구논문 260여편등 학회 설립이래 최대편수인 총 400여편의 학술논문 및 국내외 저명 과학기술자 특별강연을 발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독특한 電氣技術文化의 창출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유익한 만남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학술회의 기간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마음껏 되찾는 좋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학술회의 기간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마음껏 되찾는 좋은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학술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학술위원 및 사무국, 관련자 여러분과 그리고 후원하여 주신 협찬업체 및 이자리를 빛내주신 일본 전기학회 대표단 제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7월 19일